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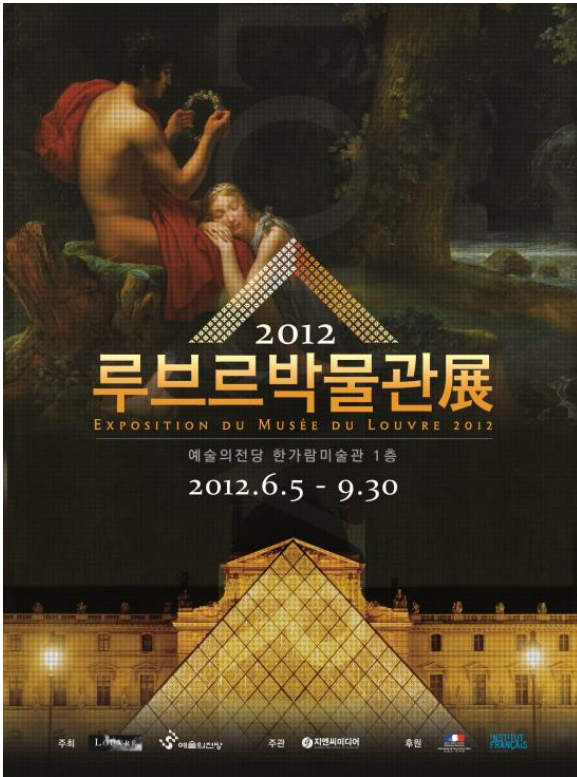


2012
루브르박물관展
EXPOSITION DU MUSÉE DU LOUVRE 2012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2012.6.5 - 9.30

[보도 자료]

- 전시기간 : 2012년 6월 5일(화)-9월 30일(일)
 - 전시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 기자간담회 : 2012년 6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
- * 보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지엔씨미디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담당자 : 김현지 팀장, 02-325-1085]

[1] 전시 개요



- (1) 전시명 : 2012 루브르박물관전
[신화와 전설]
- (2) 전시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 (3) 전시기간 : 2012년 6월 5일(화)~9월 30일(일)
- (4) 휴관일 :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휴관
(6/25, 7/30, 8/27, 9/24)
- (5) 관람시간 : 오전 11시 - 오후 8시까지
*주말, 공휴일 : 오전 10시 - 오후 8시까지
*방학기간 (7/21-8/26) :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10시 - 오후 8시까지
- (6) 전시작품 : <고대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하여
루브르 박물관의 3명의 전문 학예사들이
재구성한 회화, 조각, 고대 유물 등
총 110여 점 전시
- (7) 티켓예매 : 티켓 11번가
- (8) 홈페이지 : www.louvre2012.co.kr

주최	예술의전당, 루브르 박물관
주관	(주)지엔씨미디어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주한프랑스대사관, 주한프랑스문화원
협찬	하나SK카드, 신영증권, 기아자동차, 롯데백화점, JC Decaux, LIG손해보험, Thursday Island, 리엔케이, 펜잘큐, 노보텔
협력	SK텔레콤, 삼성전자
미디어후원	네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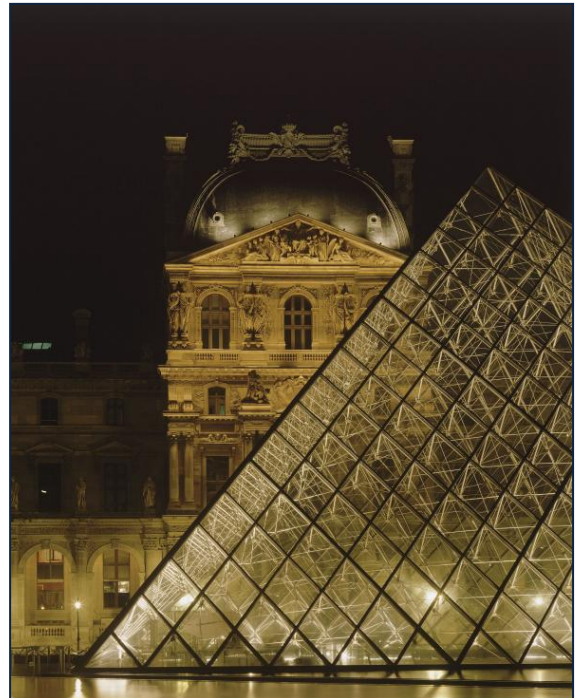
[2] 전시의 의

루브르 박물관의 대표적 소장품, 6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온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 최대이자 최고의 박물관인 루브르 박물관이 6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아온다.

지난 2006년,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열렸던 첫 번째 <루브르 박물관전>은 **단독 도시 전시 사상 60만 명이라는 이례적인 관람객수를 기록**했고, 전시 종료와 동시에 곧바로 두 번째 전시가 준비되기 시작했다. **총 6여 년간의 기간에 걸친 심도 있는 준비를 통해**, 이번 <2012년 루브르 박물관전>에는 지난 2006년 때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대표적인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품 11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루브르 박물관의 해외 전시로는 이례 없는 세 명의 전문 학예연구사가 **<그리스 신화>라는 주제로 기획을 담당**했으며, 전시 작품 또한 루브르 박물관에서 단 한 번도 해외에 공개된 적이 없는 회화 작품을 비롯하여 2미터가 넘는 조각 작품들, 기원전 10세기 경에 제작되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도자기에 이르기까지 서양 문화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대규모의 전시가 될 것이다.



▲2006년 한국에서 첫 번째로 열린 <루브르박물관전>의 홍보 포스터

▲루브르 박물관의 정면과 유리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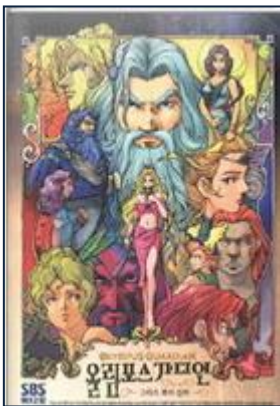
[2] 전시의의

살아있는 교과서, 2012 루브르박물관전

작품의 질과 다양성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루브르 박물관**은 전세계 걸작들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미술 애호가들과 미술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꼭 방문해야 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선사시대에서 19세기 중반에 이르는 고대 유물들과 회화, 조각 등 국보급의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미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떠나, 인류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증언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인류의 교과서**와 같은 소중한 자료들이다.

특히 **고대 신화**를 모티브로 하는 고대의 유물들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상상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경이로움을 느낄 정도이다. 이미 기원전 10세기부터 구전되어 기원전 8세기경에 문헌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신화는 지금 읽어도 그 방대한 스케일과 깊이 있는 스토리, 빈틈없이 탄탄한 구성에 감탄하게 되며, 현재까지 **영화, 소설, 미술, 음악, 게임 등 분야를 막론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고대 신화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재생산될 것이다.



◀ 고대 신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매체들 : 어린이 만화, 소설, 영화 등



◀ <루브르박물관> 소장품들 중 신화 속 신들을 표현한 고대 조각상들 : (왼쪽부터)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승리의 여신 니케, 사랑의 신 에로스

[2] 전시의 의

〈타이탄의 분노〉, 〈신들의 전쟁〉, 〈트로이〉,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대중의 관심과 유행을 앞서는 할리우드 영화들이 선택한 판타지, 그리스 신화!

최근에 개봉하여 큰 흥행을 거둔 영화 〈타이탄의 분노〉와 〈신들의 전쟁〉, 그리고 그리스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판타지 영화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 트로이 전쟁의 일화를 사실적으로 다룬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트로이〉를 비롯하여,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소재로 한 판타지 영화가 매년 여름이면 블록버스터라는 이름으로 한두 편 이상은 개봉한다.

이는 그리스 신화가 가진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들의 내밀한 이야기, 암투, 그리고 신들과 연결된 인간들의 고뇌 등과 같은 스토리텔링이 21세기를 사는 대중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신화 속의 장면을 영상 속에 담기 위해 천문학적인 특수 효과 예산을 사용한다는 사실에서, 이미 고대 사람들이 현대 영상미로도 쉽게 표현할 수 없는 풍부한 상상력을 신화 속에 담았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개봉하여 흥행에 성공한 영화 〈타이탄의 분노〉는 올림포스의 주신 제우스에 의해 땅속 깊은 곳에 갇히게 된 제우스의 난폭한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구출하여 다시 세상의 지배권을 찾기 위해 거인족들이 올림포스 신들을 상대로 벌인 전쟁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영화의 전편이었던 〈타이탄〉에서는 감히 신들의 권위에 도전한 인간들을 벌하기 위하여 신들이 보낸 바다 괴물과, 그 괴물에게 재물로 바쳐진 공주 안드로메다를 구출하기 위한 반신반인의 영웅 페르세우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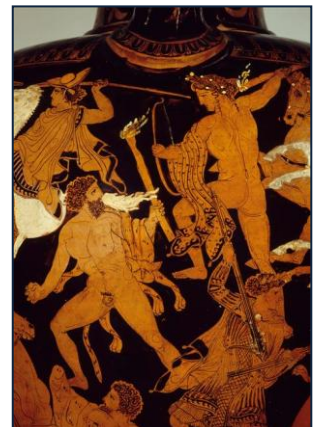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트로이〉는 신화 사상 가장 잔혹하고 긴 전쟁이었던, 스파르타와 트로이 사이에 벌어진 10년 간의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된 사건부터 마지막까지의 사건이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유명 할리우드 영화들을 통해 익숙해진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이번 〈2012 루브르박물관전〉에 모두 소개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되는 110여 점의 회화와 조각, 고대 유물들의 작품들은, 올림포스의 신들과 관련된 사건, 즉 신들의 사랑과 납치, 변신 등의 이야기 등이 한 편의 소설을 읽는 듯 구성이 되어 있어, 작가와 작품의 기법을 주로 다루었던 기존의 전시들과는 다른 풍성한 이야기를 접하게 될 것이다.



◀ 거인족과 올림포스 신들 간의 전쟁을 다룬 영화 : 타이탄의 분노

▶ 거인족과 신들 간의 전쟁 장면이 표현되어 있는 루브르 박물관 소장품 : 기원전 5세기경에 만들어진 고대 그리스 도자기



[2] 전시의 의

2미터가 넘는 대형 조각, 대형 회화 작품 및 기원전 10세기경에 제작된 고대 항아리, 대형 회화 작품 등을 통해 만나는 <루브르의 신화>

<2012 루브르박물관전>에서는 그리스 신화라는 주제에 걸맞게 올림포스의 신들을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올림포스의 군주 제우스와 질투심 많은 그의 부인 헤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태양신 아폴론 등을 회화와 조각, 고대 항아리 등을 통해 접할 수 있으며, 특히 아르테미스는 전시 초반 2미터가 넘는 대형 조각상으로, 크기만으로도 관람객을 압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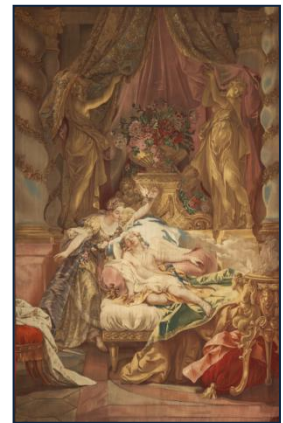
이외에도 사랑의 신 에로스의 정복자로서의 특징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감성적이지만, 그 속에 질투와 유혹, 분노, 증오와 같은 모든 감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힘을 가진 에로스의 치기 어린 장난에 의해 많은 신들뿐만 아니라 인간들조차도 그에게 굴복하게 되었다. 에로스의 '화살'에 맞아 이루어진 사랑은 아름답기보다는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기도 했다는 사실을 이번 전시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 높이 2미터의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는 전시작품, <아르테미스와 사슴>



▲ <에로스와 프시케의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만들어진 높이 3미터 60센티의 대형 태피스트리



◀ 자신이 만든 조각상과 사랑에 빠진 피그말리온의 일화를 표현한 안 루이 지로데의 <피그말리온과 갈라테이아> 높이 2미터 53센티

[2] 전시의 의의

〈프시케와 에로스〉의 화가 프랑수아 제라르, 이번에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다프니스와 클로에〉로 만나다.

지난 2006년 전시의 메인 작품이었던 〈프시케와 에로스〉의 화가인 프랑수아 제라르는 초상화와 역사화에 두루 두각을 나타냈던 신고전주의의 대표적 화가로서, 이번 전시에는 그의 중요한 작품 〈다프니스와 클로에〉가 소개된다.

〈다프니스와 클로에〉는 2~3세기경에 활동했던 그리스의 문호인 롱고스 [Longos]가 쓴 연애소설로서, 당시에는 파격적이었던 통속적인 남녀간의 연애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낸 이야기이다. 〈다프니스와 클로에〉는 문학사상 최초의 연애 소설인 만큼 당대와 후대의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현재까지도 출생의 비밀, 주변의 방해를 받는 남녀의 사랑과 같은 모티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유명한 화가인 마르크 샤갈 또한 이 이야기에서 깊은 감동을 받아, 직접 그 소설의 삽화를 다양하게 그리기도 했다.

프랑수아 제라르의 〈다프니스와 클로에〉는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샤를 10세가 첫눈에 반해 발표 즉시 구입했던 작품이기도 하다.



▲프랑수아 파스칼 시몽 제라르, <다프니스와 클로에>
204x228cm



▲프랑수아 파스칼 시몽 제라르,
<프시케와 에로스>

[2] 전시의 의

트로이 전쟁의 서막 - 파리스의 심판

이번 <2012 루브르 박물관전>을 통해 다양한 신화 속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데, 그중 주목할 만한 사건은 <트로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테마는 이미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인 <트로이>에서도 극적으로 재현되기도 했다.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의 스파르타 왕국과 트로이 왕국 간에 벌어진 10여 년에 걸친 끔찍한 전쟁에 대한 일화로, 그 속에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 같은 다양한 전쟁 영웅들이 등장하는 장편의 대서사시와 같은 이야기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끔찍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신들의 장난스러운 선택에서부터 대화재로 인하여 최후를 맞게 되는 트로이 전쟁의 결말에 이르는 모든 이야기를 접하게 될 것이다.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사건 <파리스의 심판>
루이 드 볼로뉴 2세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납치하는 파리스>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밤>

▶<트로이 전쟁 중 스파르타의 영웅 아킬레우스에 의해 죽음을 맞은 트로이의 헥토르와 이를 애도하는 부인 안드로마케>



▲<어머니인 바다의 요정으로부터 무기를 받고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는 스파르타의 전쟁 영웅 아킬레우스>

[2] 전시의 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신들의 선택 - 변신과 납치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주요한 테마는 바로 신들의 변신과 납치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저서 중에서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응용되고 연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이다.

이번 전시에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속에서 다루어진 이야기들 중 가장 유명한 테마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신은 제우스에 대한 것이다. 제우스는 부인 헤라 외에도 많은 여신 및 여인들을 사랑했으며 그녀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독수리와 백조, 황금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했고, 또 자신의 사랑을 헤라로부터 감추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인을 암소로 변신시키기도 했다.

또한 태양의 신 아폴론이 항상 쓰고 다니는 월계관이 왜 그의 상징이 되었는지도 이번 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변신 이야기>의 저자, 고대 문호 오비디우스



▲ 왕비 레다를 유혹하기 위해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



▲ 태양의 신 아폴론을 피하기 위해 월계수로 변신한 요정 다프네



▶ 미소년 가니메데스를 납치하기 위하여 독수리로 변한 제우스



▶ 헤라클레스의 부인을 납치하는 반인반마의 괴물 네소스

[3] 참고 자료

세계 관광 명소 중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최고의 박물관

영국 BBC가 지난 2012년 3월 24일에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 5년 동안, 매해 가장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당당히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 2011년 한 해에만도 약 88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았던 루브르 박물관은, 2위를 기록한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기록한 600만 명의 관람객 수를 현저히 따돌리며 그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요새〉를 가리키는 라틴어 루파라 [lupara]에서 유래한 이름인 〈루브르〉에서 알 수 있듯이 루브르 박물관은 계속되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파리를 보호하는 요새로 건설되었다. 이후, 왕궁으로 화려하게 변신하여 베르사이유 궁전과 더불어 프랑스 국왕들의 거처로 사용되었으며, 마침내, 1793년 8월 10일 세계 최초의 공공박물관으로서 그 문을 열었다.

1983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시장을 만들기 위해, 거대한 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강행된 공사를 통해, 이제는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물이 된 유리 피라미드가 그 위용을 드러낼 수 있었다. 에펠 탑이 〈기이한 철골 구조물〉이라는 오명을 받으며 처음에는 많은 반대에 부딪혔으나 이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것처럼, 유리 피라미드 역시 처음에는 전통적인 루브르 궁과 어울리지 않는 현대적인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외면 당했으나, 이제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참고 자료

올림포스의 신들

(1) 제우스 Zeus

올림포스의 최고의 신입니다. 그는 거인족을 상대로 한 혼란스러운 전쟁을 형제들과 함께 승리로 이끈 후 새로운 신들의 세상인 <올림포스>를 세웠습니다. 번개는 제우스의 상징이며, 그는 천둥과 번개를 자유자재로 부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우스를 상징하는 동물은 독수리이며, 자신이 스스로 독수리로 변하여 이곳저곳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 헤라 Hera

제우스의 부인이자, 결혼을 주관하는 여신이며 질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상징은 공작새이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작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이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여신 아테나와 함께 황금 사과와 주인이 되기 위해 다투기도 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3) 포세이돈 Poseidon

바다의 신이자 제우스의 형제입니다. 상징물인 삼지창으로 파도를 마음대로 요동치게도 잠재우기도 하며 바다 위를 달리는 말들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바다 요정 암피트리테와 결혼한 일화가 이번 전시에 소개됩니다.

(4) 하데스 Hades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신이자 포세이돈과 마찬가지로 제우스의 형제입니다. 대지의 여신의 딸인 페르세포네와 결혼했습니다. 딸이 결혼 후 지하 세계로 가버리자, 대지의 여신은 시름에 빠져 땅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지상의 인간들이 큰 굶주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제우스의 중재로 페르세포네는 봄, 여름에는 어머니의 곁인 지상에서,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하데스가 있는 지하 세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5) 아프로디테 Aphrodite

비너스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랑의 신 에로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에로스의 화살에 찔려 아도니스라는 인간을 사랑하게 되었으나 슬픈 결말을 맺고 맙니다. 이번 전시에는 아프로디테의 슬픈 사랑을 묘사한 작품이 소개됩니다.

(6) 에로스 Eros

사랑의 신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입니다. 장난기가 많았던 에로스는 사랑을 샘솟게 하는 황금 화살과 미움을 부르는 납 화살을 쏘아 남녀간의 사랑의 감정을 조정했으며, 심지어 어머니인 아프로디테에게까지 화살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에로스는 자신의 사랑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에로스가 사랑한 여인은 바로 아름다운 프시케였습니다.

[3] 참고 자료

올림포스의 신들**(7) 헤르메스 Hermes**

제우스의 명령을 수행하거나 제우스가 내린 지령을 다른 신들, 또는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바쁘게 다녀야 했던 그는 활동성이 좋은 짧은 망토를 입고 다녔습니다. 날개가 달려 있는 샌들이나 모자, 그리고 두 마리의 뱀 장식이 달린 지팡이가 헤르메스의 상징입니다.

(8) 아테나 Athena

전쟁의 여신이자 지혜의 여신입니다. 제우스의 두개골에서 갑옷으로 무장한 채 태어났습니다. 뱀 머리 카락을 달고 있는 괴물인 '메두사'의 얼굴 장식이 새겨진 방패를 가슴에 매달고 다녔으며, 머리에는 언제나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도시 아테네의 수호신으로, 아테네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습니다.

(9) 아르테미스 Artemis

사냥의 여신이자 달의 여신입니다. 태양의 신 아폴론과 남매 사이입니다. 님프들과 어울려 자연 속을 누비며 사냥을 즐겼으며, 사냥 후에는 숲 속 연못에서 목욕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 사냥꾼이 그녀의 목욕 장면을 훔쳐보다가 들킨 후 분노를 사서 사슴으로 변한 후,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게 되는 일화가 이번 전시에 소개됩니다. 아르테미스는 머리에 항상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꽂고 다녔습니다.

(10) 아폴론 Apollon

예술과 의학을 다루는 태양의 신입니다. 사냥과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와 남매 사이입니다. 제우스의 아홉 명의 딸들인 '뮤즈'와 함께 다양한 예술 영역을 관장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월계수로 변하는 것을 지켜본 이후, 월계수 잎으로 만든 관을 항상 머리에 쓰고 다녔습니다. '리라'라고 불리는 하프가 그의 상징물입니다.

(11) 아레스 Ares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전쟁의 신입니다. 제우스의 두개골에서 태어난 전쟁의 여신 아테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레스는 트로이 군대를 지지하고, 아테나는 그리스 군대를 지지하게 되면서 둘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2) 디오니소스 Dionysos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인간 세계의 공주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라의 질투 때문에 그의 존재를 숨겨야 했던 제우스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요정들에게 맡겼습니다. 포도와 포도주의 신이었던 그는 요정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는 축제를 자주 열었습니다.

REFERENCE

[3] 참고 자료

.....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 속 신들의 이름 비교 [그리스 신화 --- 로마 신화]



제우스 --- 주피터



헤라 --- 주노



하데스 --- 플루톤



포세이돈 --- 넵투누스



데메테르 --- 케레스



아테나 --- 미네르바



아르테미스 --- 다이아나



헤르메스 --- 메르쿠리우스



디오니소스 --- 바쿠스



아레스 --- 마르스



아프로디테 --- 비너스



에로스 --- 큐피드



헤파이스토스 --- 볼카누스



아폴론 --- 아폴로

[4] 전시 구성

[1] 혼돈의 시대와 올림포스의 탄생

제우스를 주신으로 한 신들의 세계인 올림포스가 생기기 전, 세상은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암흑과 어둠의 세계, 즉 <카오스>라 불리는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이때 만물의 어머니이자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 Gaia>가 자발적으로 태어났으며, 그녀로부터 하늘의 신 <우라노스 Ouranos>를 비롯한 다양한 신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태초의 신들 사이에는 끊임 없는 암투, 권력 유지를 위한 갈등이 벌어졌으며, 제우스는 이러한 혼란의 시대를 바로잡고 형제들과 함께 새로운 신들의 세계인 <올림포스>를 만들었습니다.

[2] 올림포스의 신들

강력한 제우스의 힘과 통제로 이루어진 신들의 세상 <올림포스>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질투심 많은 부인 헤라, 바다의 신 포세이돈, 지하 세계의 신 하데스, 태양의 신 아폴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등, <2012 루브르 박물관전>을 통해 올림포스의 다양한 신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3] 신들의 사랑 - 변신과 납치

인간과 마찬가지로 신들 역시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에피소드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같은 신을 사랑하기도 했고, 때로는 인간을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신들의 사랑은 아름답다기 보다는 치명적이고 위험하며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으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는 언제나 <변신>과 <납치>가 함께 했습니다. 신들의 변신 이야기 속에서 고대의 환상적인 상상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신들의 사랑 이야기 속에 <강력한 정복자>로서의 힘을 가진 사랑의 신 에로스가 늘 존재했다는 사실을 이번 전시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4] 고대 신화 속의 영웅들 - 트로이 전쟁의 일화

신화 사상 가장 격렬하고 비극적인 인간의 전투로 기록되고 있는 <트로이 전쟁>은 신들의 장난스러운 선택으로 인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다양한 회화와 조각 작품, 고대 유물 등을 통해 트로이 전쟁의 전말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 지속되는 고대 신화의 테마

고대 신화는 다채로운 테마와 무궁무진한 상상력, 그리고 도덕적인 교훈 등을 특징으로 현재에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대의 신화가 시대에 따라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변모하고 발전했는지를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작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EFS-D'OEUVRE

[5] 대표 작품 소개

[6] 전시 정보

- [1] 전시 기간 : 2012년 6월 5일(화) ~ 9월 30일(일)
- [2] 전시 장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 [3] 휴 관 일 :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휴관 (6/25,7/30,8/27,9/24)
- [4] 관람 시간 : 오전 11시 – 오후 8시까지
 *주말, 공휴일 : 오전 10시 – 오후 8시까지
 *방학기간 (7/21-8/26) :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10시 – 오후 8시까지
- [5] 홈페이지 : <http://www.louvre2012.co.kr>
- [6] 도슨트 교육 : 평일만 진행됩니다.
 (자세한 시간 및 방학 중 어린이 도슨트 일정 등은 추후 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 [7] 오디오가이드 : 현장 대여(예약 불가) – 대여료 3000원 (전시 작품 26점 설명) / 영어 가능
- [8] 오디오가이드 어플리케이션 : 아이폰/안드로이드폰 이용 가능 – 2.99달러
 * 어플리케이션에는 총 28점의 국문 작품 설명과 더불어 전시 작품 보기, 올림포스 신들에 대한 설명 및 전시 테마 설명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고화질의 이미지 및 mp3 파일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으로 용량이 큼니다.
 와이파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와이파이/무선공유기 설치)
 * 현장에서는 이어폰을 별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오디오가이드를 이용하실 분들은 꼭 이어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9] 전시 문의 : (일반 문의) 02-325-1077 / (단체 문의) 02-325-1078
- [10] 관람 요금

	개인	단체	비고
일반	12,000원	10,000원	만 64세 이하 성인
청소년	10,000원	8,000원	중/고등학생
어린이	8,000원	6,000원	초등학생
특별권	5000원		만 65세 이상, 국가 유공자, 장애인, 미취학 아동
무료권			48개월 미만



감사합니다.

보도 자료를 게재하신 후,
게재된 매체 2부를 지엔씨미디어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_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2-11 지엔씨미디어 빌딩 5층 김현지팀장)